

# Samhwa & People

vol. 31 Autumn 2018



**CLOVER**  
SH S 4040-G30Y

## EDGAR DEGAS

### [La Classe de danse(1874)]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 에드가 드가는 '파리의 근대적인 생활'을 정확한 소묘 능력과 신선하고 화려한 색채감으로 표현해낸 화가이다. 그는 발레리나와 말 타는 기수의 모습, 카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러저를 취하는 일상적인 모습 등을 색다른 시점의 구도와 자유로운 색채감으로 그려내 큰 호평을 받았다. 그의 대표작 <발레 수업(La Classe de danse)> 또한 마찬가지다. 발레리나들은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지도 교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과감하고 치밀한 형태의 구도는 마치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생동감과 입체감을 전해준다. 활기찬 풋질, 빛, 밝은 색채는 발레의 매력과 발레리나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냈다.



# CON

vol. 31

## S + SAMHWA

- 004 **NEWS** 삼화페인트 주요 뉴스
- 008 **NEW PRODUCT** ONE-STOP 워시 프라이머 & 아스콘 로드픽스
- 010 **CSR** 등두천 캠프보산 거리예술 프로젝트에 페인트 후원
- 014 **FRIENDS** 따뜻한 인연과 의리가 만들어낸 오늘, 고흥상사
- 018 **CIY CAMPAIGN** 대구영업소 오피스
- 022 **GLOBAL VIEW** 약속의 땅 베트남,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삼화비나
- 024 **EXCITING CHALLENGE** 가을을 담은 카테일 만들기



# TE



## S + COLOR

- 047 **COLOR MAGAZINE**
- 048 **2018 FALL & WINTER INTERIOR COLOR PACKAGE**
  - Autumn Blush
  - Creamy Mild
  - New Trendy
- 054 **외벽, 아트플림대 핫 트렌드 레오파드 스타일링**
- 056 **CULTURE CLUB** 전시 공연 이벤트 코너
- 057 **LETTER'S PAGE** 독자 퀴즈 코너



## S + INTERIOR

- 028 **OPEN STORY** Stylish Small Luxury House
- 032 **S+ INTERIOR**
  - Urban Chic
  - Semi Classic
  - Modern Retro
- 040 **INTERVIEW** 30대 부부의 고급스러운 아티스틱 하우스
- 044 **DIY** 내추럴 빈티지 우드 문패 DIY
- 046 **ONE POINT** Luxury Interior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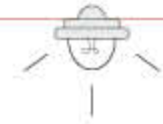
# N T S



SAMHWA

[삼화엔피플] 2018년 가을 경보간행물(계간) 등록번호 00176 / 발행일 2018년 10월 25일 / 발행인 오진수 / 편집인 김형단 / 발행처 삼화페인트 서울 중구 동화문로 58(모동 125번지) / 문의 02)765-3641 / 기획·디자인 크비즈 02)227 2-1400

\* 본 경보간행물은 인쇄용이므로 실제 페인트 컬러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컬러는 색전본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어디든지 잘 찾을 수 있어요” 전북맹아학교에 컬러유니버설 색채 계획 및 도색 지원



“개학하고 나니, 교실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밝고 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삼화페인트는 지난 8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전북맹아학교에 컬러유니버설 색채 계획 및 도색을 지원했다. 전북맹아학교는 약 70명의 전맹·저시력 및 중복장애 아동이 공부하고 있는 특수학교로, 도색한 지 오래되어 낡았을 뿐 아니라 복도 핸드 레일을 재설치 하면서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삼화페인트는 고령자와 색각이상자 등 안전 취약층의 시각환경을 고려한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개발을 하는 컬러전문기업으로서 전북맹아학교 3개동(본관동, 특별교실동, 이료관)을 위한 색채 개발을 하고 이에 맞는 친환경 도료 ‘아이생각’을 지원했다.

전북맹아학교를 위한 컬러 개발은 컬러유니버설 연구자료와 자체 설문조사(색상·무늬 구별, 선호 등)를 참고하고, 자연 속에 위치한

전북맹아학교의 아늑한 환경을 극대화하여 심리적, 시각적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에서 따온 부드러운 컬러를 색채 계획에 반영했다. 각 동마다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하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가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신경 썼으며, 도색까지 깔끔하게 마쳤다.

한편, 전북맹아학교 교육환경 지원사업은 삼화페인트가 하트하트 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인비저블 투 비저블(Invisible to Visible)’ 사업의 일환이며 현재까지 세 곳의 시각장애안학교를 지원했다.

‘인비저블 투 비저블’ 사업은 색과 사물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아동이라도 교육을 통해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했으며, 시각장애안학교에 컬러 복지를 도입한 교육환경 개선 및 특수도서 제작지원으로 진행된다.

## 국내 히스토리컬 컬러와 친환경 컬러의 만남 ‘SAMHWA-NCS COLOR MASTER 600’ 컬러북 출시



이번에 출시한 ‘SAMHWA-NCS COLOR MASTER 600’은 삼화페인트의 72년간의 노하우를 집약한 것은 물론, 시장에서 인기 있는 베스트 컬러들과 트렌드 컬러를 선별하여 총 6가지 콘셉트로 600색을 구성했다.

오프 화이트(Off White), 그레이시(Grayish), 소프트 & 미드(Soft & Mid), 클린 & 마일드(Clean & Mild), 브라이트 & 스트롱(Bright & Strong)으로 구성했으며, 먼셀 뉴트럴(Munsell Neutral) 컬러를 더해 시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SAMHWA-NCS COLOR MASTER 600’은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컬러들로 구성되어 실무에서 더욱 쉽고 빠르게 컬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형 사이즈로 제작되어 디자이너와 도장 전문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한다. 사이즈에서는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컬러 구성에 있어서는 활용성에, 도료에 있어서는 재현성에 공을 들였다.

이번 컬러북은 가을 성수기 시즌을 맞이하여 재도장 및 건축물 외관 색채 계획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며, 더 빠르고 정확한 컬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화페인트는 사용 편의성 및 활용성, 도료 재현성에 초점을 맞춘 건축용 인기 컬러들로 구성된 ‘SAMHWA-NCS COLOR MASTER 600’ 컬러북을 출시했다.

삼화페인트는 지난 2012년 2월 글로벌 색채 전문업체인 ‘NCS COLOUR AB(이하 NCS)’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이후, 페인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체계화된 색채 표준을 구축했으며, 이번 ‘SAMHWA-NCS COLOR MASTER 600’ 컬러북 역시 NCS 색체계를 사용했다.

## 특수정밀화학 제조업체 ‘대림화학’ 인수 도료 산업과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의 시너지 창출 기대



삼화페인트가 인수한 대림화학은 1976년 설립 이래 40여 년간 축적된 전자재료 및 의약품 중간체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화학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경남 함안에 위치해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전자재료 및 의약품 중간체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전자재료는 제품의 특성상 금속이온관리 능력이 중요하데, 대림화학은 이러한 금속이온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자재료, 의약품 등에 원료로 사용되는 그리냐르(Grignard) 반응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 매출을 유지해왔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인수를 통해 대림화학이 보유한 전자재료 소재, 의약품 중간체, 촉매 등 특수기능성 화학소재 제품 시장 진출 및 기존 도료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화페인트는 특수정밀화학 제조업체인 ‘대림화학’을 인수했다.

## '슈가플래닛' 전시회에 준불연 바닥재·친환경 도료 협찬



삼화페인트는 내년 4월 7일까지 서울숲 갤러리아포레에서 진행되는 '슈가플래닛(Sugar Planet)' 전시회에 친환경 도료를 협찬했다. '슈가플래닛'전은 설당을 소재로 한 텍스트, 오브제,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영상 및 음악이 어우러져 달콤하게 구성된 새로운 융복합 전시회다. 1,652m<sup>2</sup>(약 500평) 규모의 초대형 공간에 마련된 14개

존에서 마음스튜디오, 태재, 윤석철, 이주연 등 주목받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클라이맥스인 'We are Sweet'에서는 공간 중앙에 위치한 3.5m 대형 솜사탕을 중심으로 벽면의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 슈가플래닛의 웅장한 행성소를 관측할 수 있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슈가플래닛전에서 준불연 도로 바닥재인 세라플로어 등 전시회에 사용하는 도료 일체를 협찬했다. 삼화페인트 세라플로어는 불에 쉽게 타지 않아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컬러로 구성돼 다채롭고 풍성한 색감을 구현할 수 있다. 관람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특색 있는 작품과 삼화페인트가 만들어낸 선명한 색감이 시너지를 이뤄 전시회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앞서 삼화페인트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제작된 'ALICE : Into The Rabbit Hole'을 비롯해 국립미술관이 기획한 컬렉션 '샤갈 러브 앤 라이프' 등 전시 분야에 도료를 지원하며 문화 예술 발전에 앞장서왔다.

## 2년 연속 '2018 유니온 아트페어' 후원

삼화페인트는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성수동 S팩토리 D동에서 열린 '2018 유니온 아트페어(UNION ART FAIR 2018 Let's make together)'에 페인트를 후원했다. 현대미술의 촉매이자 대중에게 미술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어포더블 아트페어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현재 국내외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330여 명의 국내 작가가 참여해 1,30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삼화페인트는 '2018 유니온 아트페어' 전시장 내에 쓰이는 도로 일체를 친환경페인트인 아이생각 수성내부프로로 지원하는 한편, 유니온 아트페어 참여 작가와 콜라보를 통해 페인트 캔과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하여 제작한 포토존을 운영했다.

한편, 삼화페인트는 시각 장애아동을 위한 점자 팝업북을 제작해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사회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편의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채색을 지원하는 등 색채전문기업으로서 정체성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2018 SAMHWA COLOR TALK SEMINAR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가 10월 26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층에서 '2018 SAMHWA COLOR TALK SEMINAR'를 개최한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 '2018 SAMHWA COLOR TALK SEMINAR'는 매년 새로운 주제와 시도로 컬러 및 디자인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번 컬러특 세미나는 'F-R-ISM'을 주제로 개최되며, 'F-R-ISM'은 변화와 유동의 시대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대변하는 키워드를 뜻한다. 연사로는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 그리고 스타일러스 수석연구원 사이즈앤기스 다스와니가 참여해 기술과 휴머니티, 인공지능과 창의성, 미래주의와 과거에 대한 향수 등 상반된 요소 간의 자유로운 융합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마지막 강연에는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인 김향란 이사의 '2019-20 Future Consumers & CMF Trend' 강연으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CMF(Color, Material, Finishing : 컬러, 소재, 마감)를 제안한다. 또한, 오픈 세레모니(OPEN CEREMONY)에서는 건축, 인테리어, 자동차, 가전 부문의 CMF 전시 설명이 진행되며, 소재와 컬러 전시를 통해 삼화페인트만의 다양한 정보·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컬러특 세미나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 홈페이지(scd.spi.co.kr)를 참고하면 된다.

### 강연자 및 프로그램 소개



빅데이터, 세상을 읽다 | 송길영  
- 다음소프트 부사장  
- 한국미래데이터마케팅학회 부회장  
-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Activated Materials | Saisangeeth Daswani  
- 스타일러스 수석연구원



2019-20 Future Consumers & CMF Trend | 김향란  
-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

## 기능성 금속 표면처리제 ONE-STOP 워시 프라이머

가을을 맞아 셀프 페인팅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은 요즘,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표면의 페인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삼화페인트가 비철금속 위에 발라주면 페인트와의 접착력을 높여주는 'ONE-STOP 워시 프라이머'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름, 워시 프라이머. 동시에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도료인 워시 프라이머는 일반적인 철재와 달리 페인트칠이 잘 안 되는 비철금속(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아연, 황동 등) 위에 발라 페인트와의 부착력을 높이는 제품이다. 비철금속과 페인트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삼화페인트가 새롭게 출시한 'ONE-STOP 워시 프라이머'는 뛰어난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워시 프라이머는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 화학반응을 하는 2액형 도료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번 신제품은 2액형의 1액형화, 유성의 수성화를 통해 뛰어난 변화를 이루어냈다. 흔히 1액형은 화학반응을 하는 2액형보다 기본적인 물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판단은 금물. ONE-STOP 워시 프라이머는 에폭시 수지로 비철금속에 뛰어난 부착성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높은 작업 편의성과 빠른 건조성, 내수성까지 갖추었다. 이뿐만 아니라, ONE-STOP 워시 프라이머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의거해 실내에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중금속·크롬산·아연이 없는 중금속 FREE 타입의 워시 프라이머다.



## 바닥용 보수재 아스콘 로드픽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가 큰 편이다. 여름철 폭염으로 기온이 40°C에 이르는가 하면 겨울철에는 영하 10~15°C까지 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연교차가 철근-콘크리트의 수축·팽창을 일으켜 공간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에 삼화페인트는 우수한 균열 보수 기능을 갖춘 '아스콘 로드픽스'를 출시했다.

우리나라는 오래되고 낡은 콘크리트의 수축과 팽창으로 인해 균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건물 벽면에 실금이 가는 것은 물론, 운전용 하다 보면 도로 곳곳의 갈라진 틈이나 포트홀(도로 구멍)로 인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때도 많다. 이에 삼화페인트가 새롭게 출시한 '아스콘 로드픽스'는 뛰어난 콘크리트 균열 보수 기능으로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제품이다. 건축물의 바닥, 콘크리트 도로나 아스팔트 도로의 포트홀(도로 구멍) 등 진동과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아 균열이 일어난 부분의 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

아스콘 로드픽스는 메틸 메타아크릴 수지를 바인더로 한 2액형 타입의 고기능 보수재이다. 시공 방법이 간단해 보수가 용이하며, 연결부 없이 시공되므로 청소가 용이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도와 부착력이 좋아 에폭시처럼 기반암에서 암괴가 양파껍질처럼 떨어져나오는 팍 아웃(골조 바리) 현상이 없다. 내오염성과 함께 내화학적, 내마모성과 내충격성 또한 우수하다. 아울러 영하의 기온에서도 금속 양생이 가능하여 사계절 내내 시공할 수 있고, 흡수율이 없어 동절기 동파나 강도 저하가 없으므로 추운 겨울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 박질회 마켓기획팀 과장

CSR

금  
편진실  
사진  
경기도미술관



이탈리아의 조이스 작가 작품



프랑스의 호파레 작가 작품



스페인인 안토니오 마르스 작가의 작품



프랑스의 스위즈 작가 작품



조이스와 호파레 작가의 합동 작품

페인트로 실천하는 나눔  
**동두천 캠프보산 거리예술 프로젝트에 페인트 후원**

도심 속 평범한 회색 콘크리트 기둥이 삼화페인트와 만나 화려한 페인팅 아트로 새롭게 태어났다.  
마치 갤러리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대담하고 예술적인 작품들은 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그래피티 아트 빌리지'의 명성을 다시 한번 높였다.



스위즈 작가



참여 작가단체 사진



작업 중인 안토니오 마레스트 작가



프랑스의 스위즈 작가작품

매년 '동두천시 캠프보산 거리예술 프로젝트'에 페인트를 후원해온 삼화페인트가 올해도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환경을 이용한 프로젝트에 페인트 전량을 후원했다. 동두천시가 주최하고 경기도 미술관이 주관한 '동두천시 캠프보산 거리예술 프로젝트'는 낙후된 거리 및 환경에 예술가들의 페인팅 아트를 입혀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다. 2015년 12월을 시작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보산역 지하철 교각을 이용한 페인팅 아트를 6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완성했다.

#### 유럽 예술가들의 손에서 작품으로 태어난 홈스타 파스텔

이번 동두천 캠프보산 거리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3개국(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4명의 그래피티 작가는 삼화페인트의 '홈스타 파스텔'을 활용해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를 형형색색 아름답게 탈바꿈시켰다.

이탈리아의 조이스(Joys)는 관람자의 관람 방향에 따라 나타나는 알파벳 형상을 교각에 담았다. 원형 기둥을 이용한 검은 선과 컬러 라인은 작가만의 스타일로 알파벳을 표현한 것이다. 화려한 색상과 면으로 장식한 작품에서 즐거운 퍼즐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프랑스의 호파레(Hopare)는 6대륙의 대표적인 얼굴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려냄으로써, 모든 인종이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작가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그려놓은 스케치를 바탕으로 '누구나 같으며, 아름답다'라는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처음 만난 조이스와 호파레는 둘만의 협동 작품도 남겨놓았다. 조이스는 철저한 계산과 건축적인 도식으로 작품을 남기는 작가이며, 호파레는 즉흥적인 선과 컬러로 작품을 만드는 작가이다. 두 작가의 협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동두천에만 존재하는 작품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교각 작업에 참여한 프랑스의 스위즈(Swiz)는 좁사 도로의 반사경에 비치는 도시의 모습을 담은 풍경을 담았다. 작가는 블록 거울에 비치는 외국인관광특구의 건물들과 거리들을 도식화하고 결합하는 작업을 통해 사실적인 풍경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와 함께 스위즈는 인근의 상가 건물 또한 생동감 넘치는 페인팅 아트로 새롭게 꾸몄다.

스페인인 안토니오 마레스트(Antonyo Marest)는 스페인 특유의 색상을 사용해 평범한 상가 건물을 지중해풍 건물로 탈바꿈시켰다. 작가는 아이스크림 토핑으로 비유되는 알록달록한 패턴을 사용하여 향기로운 건물이라는 작품을 남겼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된 '홈스타 파스텔'은 세계적인 작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조이스는 "삼화페인트 제품은 제가 추구

하는 컬러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기본적인 질감과 색감 표현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삼화페인트의 우수성을 추켜 세웠다.

호파레는 "저는 제작 과정에서 스케치를 지우는 용도로도 페인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여러 번 작업해야 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2~3번 만에 해결해 만족스럽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스위즈 또한 "한국 페인트는 우수한 품질로 유럽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제품을 다른 작가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네요"라며 삼화페인트를 높이 평가했다.

안토니오 마레스트는 "이번에 사용한 삼화페인트의 제품은 제가 원하는 색감을 훌륭하게 만들어냈는데, 특히 다양한 컬러를 현장에서 희석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 지역공동체에 행복을 전하는 삼화페인트와 공공예술

삼화페인트와 동두천시, 경기도미술관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동두천시 외국인관광특구. 오늘날 이곳은 한국, 태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출신의 18명의 작가들이 4년간 만들어낸 거리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그래피티 아트 빌리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 10월 27, 28일에는 지난해 큰 성공을 거둔

'힐로원 거리 예술 축제'가 이곳에서 열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삼화페인트와 경기도미술관은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공공예술의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미술관 최기영 큐레이터는 "2015년 작은 벽면에 그려진 작품 하나가 오늘의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를 만들었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벽에 화려한 페인팅 아트를 그려 넣으니, 아무도 찾지 않던 거리가 시민들로 붐비는 공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경기도 미술관은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공공예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향기로운 작품의 밑거름이 될 페인트를 적극 지원해주는 삼화페인트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새로 태어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는 지역주민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다. 특히 한 주민은 "낡은 거리와 교각이 아름다운 페인팅 아트로 다시 태어나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입니다"라며 "나중에 개인적으로 페인트를 사용할 때도 다양하고 컬러가 아름다운 삼화페인트 제품을 쓰고 싶습니다"라고 삼화페인트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다.

삼화페인트는 앞으로도 21세기 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삶의 예술을 통해 독창적인 문화공간 역할을 담당할 공공예술의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S

# 따뜻한 인연과 의리가 만들어낸 오늘

## 인천 고/흥/상/사

"삶의 신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인연과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인천 고흥상사 한남준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인연과 의리'였다. 어렵고 힘들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항상 삼화페인트와 직원들, 고객 및 지역사회가 곁에 있었기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한남준 대표. 이들과의 인연을 평생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른 아침,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만난 삼화페인트 대리점의 상호는 '고흥상사'였다. 남도의 소문난 일출 명소이자 노래 '해 뜨는 고흥'으로 유명한 곳. 한남준 대표의 고향 고흥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고흥상사는 그 이름처럼 아침부터 활기찬 열정으로 가득 차 보였다. 연이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각 사업장에서 찾아와 물건을 주문하는 고객들의 목소리를 따라 대리점 안을 미로처럼 가득 채우고 있던 삼화페인트 제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매일 새벽 3시 30분에 대리점을 오픈합니다. 그 시간에도 고흥상사를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벽같이 고흥상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새벽 오픈의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130개가 넘는 거래처와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삼화페인트 제품을 잔뜩 들여다 놓아도, 오후가 되면 몰려드는 고객들로 물량이 부족해질 때도 있습니다. 모두 고흥상사가 신뢰받고, 삼화페인트의 우수한 기능과 품질이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여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생의 첫발을 삼화페인트와 함께

한남준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정이 많고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런 그가 삼화페인트와 인연을 맺게 된 건 군대에서 제대한 후 돈을 벌기 위해 인천으로 상경하면서부터다.

"30년 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천으로 올라왔어요. 무엇을 할까 생각하던 차에 지역 내 페인트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을 접해서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삼화페인트 인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삼화페인트와 인연을 맺은 한남준 대표는 20여 년간 근무하며 영업이사의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는 법. "어느 날 문득 후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회사를 나갈 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퇴사하고 내 사업을 해보자는 쪽으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페인트 대리점 운영에 도전했죠." 이렇게 한남준 대표의 인생 2막 또한 삼화페인트와의 인연에서 시작됐다.

### 직원·고객·지역사회 모두와 함께하는 고흥상사

그렇게 인천광역시에 마련한 대리점의 상호를 고흥의 이름을 딴 고흥상사로 정하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인연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신조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진심을 앞세워 직원들에게, 고객들에게, 지역사회에게 다가서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자연스럽게 직원들과 고객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여들었다.

전 직장에서의 인연으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직원, 대리점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직원, 큰 처남 아들로 대리점 일을 자기 일처럼 사랑해주는 직원 등 크고 작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그와 한 가족처럼 지낸 직원들은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자산이다. 직원 중에는 그와 함께한 지 20년이 넘는 직원들도 있다.

"누구 하나 고맙지 않은 직원이 없어요. 가족도 못 믿은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따뜻한 정과 의리로 고흥상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직원들을 보고



있노라면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 고흥상사의 존재  
이유인 직원들이 앞으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올 추석에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직원의 가정에 산삼 선물을 했습니다.\*  
한남준 대표에게 고마운 인연은 비단 직원들뿐만이  
아니다. 언제나 신뢰와 의리로 함께해준 고객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고흥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현재 130여 개 정도의 거래처가 있어요. 모두 고마운  
분들이죠. 이분들이 없다면 지금의 고흥상사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모두  
형님 동생하며 지냅니다.\* 고객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남준 대표는 이들을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야유회 자리를 마련하여 봄에는 산으로 가을에는  
바다로 가배 낚시를 즐긴다. 올봄에는 산삼도 캐다고.  
또 매년 연말에는 삼화페인트 대리점 및 거래처 150개  
업체가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 가족처럼  
모여 친목을 나누는 것은 물론, 페인트 업계의 신제품,  
신기술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만남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송년의 밤에 들기름을 선물했다는 한남준  
대표는 올해 선물 또한 고심 중이라고.  
모든 인연과 의리를 소중히 생각하는 한남준 대표의  
마음은 또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봉사  
활동이다. 예전부터 소소하게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그 매력에 빠져 현재 8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열정을 인정받아 계양경찰서 봉사단체 연합회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계양경찰서와 인천광역시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힘든 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생각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다가도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떠올리고  
다시 활동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이제 생활이 됐어요.  
이제는 어려운 노인이나 사람들을 도우며 삶의 보람과  
에너지를 느낍니다.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에 다시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페인팅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 가을을 맞아 요새 부쩍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한남준 대표. 그런 그에게  
삼화페인트에 대해서 묻자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준  
최고의 인연이자 파트너라고 말했다. "삼화페인트는  
오늘의 나와 가족, 고흥상사가 있게 해준 고마운 벗이자  
동반자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정말 고마운  
회사입니다."  
한남준 대표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서는 삼화페인트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고객들과 형제 가족처럼  
지내며, 그 신뢰와 신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흥상사는  
삼화페인트 대리점 매출 Top 5 안에 드는 대리점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넘버 원의 삼화페인트 대리점'이 되는  
그날을 꿈꾼다는, 언제나 좋은 인연과 의리로 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고 싶다는 그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S

## PLCK

친환경 건축용 도료  
'아이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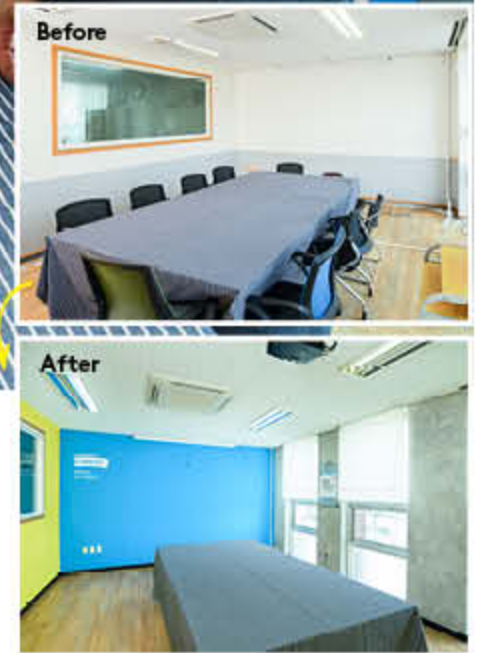
삼화페인트가 친환경 페인트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발에 착수해 탄생한 제품이 '아이생각'이다. '아이들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탄생한 아이생각은 납,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고 환경부의  
VOC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삼화페인트가 가진 우수한 기술력이 총동원된 친환경 제품이다.





## 모두가 사랑하는 회의실 옐로우로 긍정하고 블루로 혁신하다

대구영업소 오피스



삼화페인트 대구영업소가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CIY CAMPAIGN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희망찬 프레시 레몬(Fresh Lemon)과 도전적인 블루 버드(Bluebird)의 조화는 그 자체로 온몸에 활력과 에너지를 전해준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영업소는 삼화페인트 남부 지역의 거점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제 막 첫발을 디딘 신입사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남부 지역에서 경력을 쌓은 삼화인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 각 지역을 이끄는 영업소장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바로 대구영업소이기 때문. 특히 그중에서도 회의실은 언제나 대구영업소를 찾아온 삼화인들과 고객들로 붐비는 핫플레이스라 할 수 있다. 이번 CIY CAMPAIGN의 주인공은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바로 이 회의실을 새롭게 단장하려고 하는 대구영업소 삼화인들이다.

### 프레시 레몬과 블루 버드의 환상적 케미

대구영업소는 오영진 소장을 필두로 총 9명의 삼화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이 CIY CAMPAIGN을 통해 완성하고 싶은 회의실은 어떤 모습일까? 삼화인들은 이번 페인팅의 콘셉트로 '긍정, 혁신, 다양성'을 꼽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채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대구영업소의 회의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메인 컬러 또한 희망과 명랑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프레시 레몬(Fresh Lemon), 도전과 비전을 상징하는 블루 버드(Blue Bird)를 선정했다. 벽면 기둥에는 신제품 컬러데코마블월과 시멘트데코플러스를 시공해 다양성이 있는 회의실을 꾸미기로 했다.

먼저, 신선하고 상큼한 레몬을 떠올리게 하는 프레시 레몬 컬러를 벽면에 칠하니 공간에 개방감과 활력, 율동성이 살아났다. 조현영 차장은 "밝은색인데도 은폐력이 좋아서 컬러의 무드가 명확하게 표현됩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메인 컬러인 블루 버드는 푸른 하늘을 나는 파랑새를 연상하게 하는 컬러로 차분하고 이성적인 열정을 끌어올리는 데 제격인 컬러다. 보기만 해도 생기가 넘치는 블루 버드는 채도가 비슷한 프레시 레몬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프레시 레몬과 블루 버드의 케미가 환상적이네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FRESH LEMON  
SH S 0570-Y



BLUEBIRD  
SH S 2060-B



컬러데코마블월



시멘트데코플러스

### 다 함께 힘을 합치니 개성 넘치는 회의실이 짜잔!

두 개의 기둥에는 '컬러데코마블월'과 '시멘트데코플러스'를 시공했다. 컬러데코마블월은 삼화페인트가 차별화된 인테리어 제품 확장을 위해 고급 인테리어 바닥재 컬러데코마블월로 출시한 데 이어 벽면용으로 출시한 페인트이다. 총 12가지 컬러 중 스모그 컬러를 활용해 페인팅했다. 헤나를 이용해 속속 마블을 만들어내는 임정환 선임차장과 임상구 과장의 손길을 따라 반짝이는 고광택 표면과 화려한 메탈릭 질감이 개성 있게 완성됐다.

시멘트데코플러스 시공에는 지승현 선임과장과 임태열 대리가 나섰다. 시멘트데코플러스는 고온 입자와 은은한 시멘트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도료다. 건축용 페티로 미장 및 샌딩을 해주고, 붓, 롤러 등으로 하도를 1~2회 도장한 후 흠손, 헤나 등으로 자유롭게 스타일링하니 차가운 듯하지만 부드러운 감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벽면이 완성됐다. "컬러데코마블월과 시멘트 데코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작업 도구에 따라, 작업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지요. 헤나를 사용하면 부드러운 느낌이, 흠손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거칠고 빈티지한 느낌이 강해요. 어느 부분에 어떤 패턴을 만드느냐에 따라 나만의 인테리어가 완성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렇게 대구영업소의 회의실은 프레시 레몬과 블루 버드 컬러, 컬러데코마블월과 시멘트데코플러스를 통해 더욱 업그레이드되었다. 오영진 소장은 "이번 CIY CAMPAIGN을 통해 대구영업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 완성되어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라며, "새롭게 완성된 회의실은 차후 영업소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삼화페인트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쇼룸 스토어 공간으로도 안성맞춤이어서 더욱 보람합니다"라고 밝게 웃었다. 마지막으로 오영진 소장 and 삼화인들은 이번 CIY CAMPAIGN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회의실을 거듭 둘러보면서 "앞으로도 대구영업소는 하나의 목표를 함께 공유하며, 서로 배려를 통해 힘을 합쳐서 다 함께 전진해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자신감 넘치는 포부를 전했다. S



왼쪽부터 임태열 대리, 임정환 선임차장, 임상구 과장, 조현영 차장, 오영진 소장, 김현주 대리, 김유선 선임차장, 지승현 선임과장



### CIY CAMPAIGN 오픈 - 삼화페인트와 함께 꿈꿔왔던 페인팅에 도전하세요!

삼화페인트의 'CIY(Color It Yourself) CAMPAIGN'은 우리 회사의 부서, 영업소와 대리점 등을 방문해 페인트를 통한 인테리어 변신을 도와주는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던 컬러는 우리의 생활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컬러를 어떤 정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직장 내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삼화페인트는 부서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반영한 컬러 페인팅으로 활기찬 2018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컬러디자인센터 이미지 대리(speople@samhwa.com)



## 약속의 땅 베트남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삼화비나

지난 여름의 막바지를 뜨겁게 달구었던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어느 나라나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종합스포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국격을 한 단계 높였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필자도 인도네시아에서 종합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만, 1988 서울올림픽 당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선진국들의 시선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선을 잠깐 돌려 우리 삼화페인트를 바라보자면, 삼화페인트는 특정 부문의 도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닌 거의 전 부문의 도료 연구와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한 종합도료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삼화페인트가 이번 2018 아시안게임에서 어떤 종목 혹은 어떤 나라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을까요? 항상 큰 대회에서는 다크호스 또는 변방국의 깜짝 스타가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축구의 불모지와 같았던 동남아의 신에 베트남 남자축구대표팀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언론과 여론에서 베트남 남자축구대표팀을 2002년도의 히딩크 사단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평균 20점 맞는 중학생을 50점 맞게 하는 것이 평균 95점의 학생을 97점으로 만드는 것보다 쉬운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훌륭한 지도자의 역량이 8할, 9할 이상이지만, 워낙 축구의 수준이 낮았기에 더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공부뿐만이 아닌 경제개발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1970~80년대의 대한민국이 그러했듯이 지금 베트남 또한

농업이 아직은 저물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이 30% 이상 경제를 이끌고 있고, 서비스업이 40% 이상으로 의외의 산업구조를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화페인트도 이미 2곳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음과 동시에, 상당한 숫자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개발도상'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약속의 땅'으로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미완의 대기인 베트남 시장은, 개발과 도상의 흐름을 받쳐줄 부품과 소재 산업의 기반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베트남의 각 정부 부처와 은행이 협력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금 우대, 대출 지원, 실질적인 투자금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 전자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시장이 아직도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는 형국입니다.

이미 베트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삼성, LG) 및 일본기업(Sony, Nikon 등) 등의 대규모 투자진출로 인해 부품·소재 협력업체의 베트남 동반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협력기업의 진출은 현지에 자본과 기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 베트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요한 듯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약속의 땅 선점 전쟁에, 삼화페인트가 이미 상당

부분 기반을 다져놓았다는 사실은 가히 고무적입니다. 가능한 많은 한국기업이 베트남 각지에 휘날리고 있는 백지수표를 주워 담아, 삼화페인트와 함께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2018 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 남자축구대표팀은 아쉽게도 3~4위전에서 패배하여 메달을 따지 못한 채 4위에 머물렀지만, 요즈음의 대한민국 여론이 올림픽 등의 국제대회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환하여 표현하자면 '역대 최고 성적인 4위의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근래 베트남의 분위기를 언론을 통해 접하면, 거의 2002년 대한민국의 열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술적으로 베트남은 대한민국 인구의 2배에 가까운 9,6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나라는 대국(大國)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Want-to-go Place 중의 한 곳은 베트남이기도 하지요. 인구 밀도로 보나, 성공의 기회로 보나 많은 것이 이미 포화된 대한민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의 법칙'의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베트남은 한 입 한 입 베어먹는 사과가 한참 맛있게 시키고, 대한민국은 그 그래프의 고점에 임박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붉은색 국기를 가진 약속의 땅 베트남에서 찾는 블루오션. 무언가 대한민국의 태극 문양이 떠오르기에 희망을 한 번 더 가져봅니다. S



쉐킷! 쉐킷!

# 가을을 담은 칵테일 만들기



칵테일은 기호에 따라 독특한 맛과 빛깔, 향기를 낸다. 특히 낯선 조합이 만나 새로운 번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매력적인데, 나만의 초간단 칵테일 레시피를 찾아 TS팀이 일일 바텐더로 나섰다. 배우고, 만들고, 마시는 과정 끝에 궁극의 셰이킹 기술까지 익혔다. 가을 분위기에 흠뻑 취하게 해줄 특별한 시간, 홈 칵테일이다.



칵테일은 깊어가는 가을과도 잘 어울리는 술이다. 영롱한 빛깔의 칵테일 잔은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고, 독특한 맛과 향은 음미할수록 깊은 가을 감성에 빠져드는 듯한 기분을 안긴다. 사람들이 여럿 모이는 모임에서도 칵테일만 한 것이 없다. 자신의 입맛대로 즐길 수 있는 칵테일은 모두가 함께 즐기기에 부담이 적다.

**칵테일, 어렵지 않아요**

질은 바이올렛 컬러가 매력적인 라일락 토닉(Lilac Tonic)은 달콤한 맛과 향으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달콤한 라일락 음료와 토닉 워터를 조화롭게 섞은 만큼, 맛없기가 더 어려운 일명 '맛 보장' 칵테일이다. 말린 라일락 꽃을 데커레이션으로 올려주면 은은한 꽃향기가 술의 첫맛을 상큼하게 돋워준다.

태어나서 처음 칵테일을 만들어봤다는 주상희 대리는 이번 체험에서 만든 라일락 토닉을 인생 칵테일로 꼽았다. "술을 못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칵테일이예요. 앞으로 좋아하는 칵테일이 뭐냐고 질문받는다면, '라일락 토닉'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한 잔 가득 새로 채운 칵테일과 함께 이야기가 술술 이어진다. 그래스호퍼(Grasshopper)는 부드러운 민트맛이 나는 칵테일로 잘 알려져 있다. 베이스 주류인 민트향 나는 리큐르에 화이트 카카오를 넣어 만든다. 균형 잡힌 계량과 빠른 손놀림 그리고 셰이킹(Shaking)은 필수. 마지막으로 초콜릿 장식까지 섬세하게 올려주면 완성이다. 매력적인 그린 컬러의 크림 칵테일은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이다.

이유준 대리는 바텐더가 직접 셰이킹하는 모습을 본 것도 처음, 직접 셰이킹을 해본 것도 처음이라며 눈을 빛냈다. "셰이킹에도 혼드는

방법, 횟수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멋있게 하는 줄 알았는데, 술과 음료의 비율, 얼음이 녹는 정도 등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고려해 셰이킹하는 것이 놀라웠어요."

**나만의 개성과 취향을 담아**

보드카의 쓴맛과 달콤쌉사름한 커피의 풍미가 어우러진 에스프레소 마티니(Espresso Martini)는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는 칵테일이다. 베이스 주류는 진, 보드카이다. 테킬라와 커피가 주성분인 갈루아 리뷰어, 에스프레소, 얼음을 셰이커에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커피 원두를 위에 올리면 OK! 우유를 첨가하면 한층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

능숙한 바텐더 연기로 모두에게 큰 웃음을 준 정흥호 대리님과 전문가도 인정한 파워 셰이킹으로 감탄을 자아낸 김규남 과장이 'Favorite'으로 선정된 칵테일 또한 에스프레소 마티니였다. 평소 갈루아 밀크를 좋아했다는 임소희 사원은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맛 보고는 좋아하는 칵테일이 하나 더 늘어 기쁘다며 웃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 향이 진하게 나서 좋았어요. 특히 재료들의 정해진 비율은 있지만 취향껏 조절하여 나만의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으려고요."

어느새 칵테일 만들기 클래스에 흠뻑 빠져든 TS팀의 삼화인들. 직접 만들어본 칵테일은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인 체험이었다. 이날 삼화인들은 칵테일 한 잔에 담긴 맛과 향 그리고 빛깔에 감탄하며 칵테일 예찬을 멈추지 않았다. 5



칵테일 만들기 배우하니 어땠나요?



김규남 과장



주상희 대리



정흥호 대리



이유준 대리



임소희 사원

직접 만들지 않았으면 한 잔의 칵테일 안에 담긴 다양한 맛과 향을 전부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어떤 비율로 섞였는지 알기 때문에 각각의 재료가 가진 맛과 향까지 음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재료들이 잘 섞여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맛. 그제 바로 칵테일의 매력이구나 싶었습니다!

TV를 통해 봤을 때는 복잡하게만 느껴졌었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술의 종류와 특성만 안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칵테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분이 있는 팀원들과 함께 해서 그런지 더욱 재미있고 즐거웠던 체험 시간이었어요. 직접 해보면 정말 매력 만점인 익사이팅 클래스, 다음에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네요.

칵테일 만들기는 처음이었지만 낯설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친절하게 강의를 진행해주신 바텐더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직접 바에서 칵테일을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에 기억 속에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삼화인들도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달달한 무알콜 칵테일을 좋아해 집에서 재미 삼아 몇 잔 만들어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전문가에게 직접 배운 것은 처음인데요. 술과 음료의 양을 취향에 맞게 조절해서 나만의 칵테일을 만들 수 있어 제 입맛에도 정말 딱이었어요. 이제 저희 팀 회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 칵테일 만들기에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칵테일 만들기는 처음이었는데요. 이토록 간단하게 환상적인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니,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언니 오빠들, 지인과 함께 놀러 간 것처럼 즐겁고 색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잠시나마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즐거운 체험에 몰입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CITING CHALLENGE에 도전하세요!**

우리 회사 부서-동호회 사무들과 함께 체험하고 싶은 원데이 클래스가 있나요? 지금 바로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원데이 클래스 체험을 지원해드립니다.

참여 방법 원하는 원데이 클래스와 사연을 <people@samhwa.com>로 보내주세요.  
참여 연월 신청 부서-동호회 사무 4~6명

# Stylish Small Luxury House

## Autumn Inspiration *House*

오랫동안 '나'를 마주하고 '나'를 위한 진정한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 이를 반영한 '소확행', '1코노미', '올로' 등의 흐름에 발맞춰 인테리어에도 '스몰 럭셔리(Small Luxury)'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작은 소품과 벽 컬러 등을 활용해 집 안 공간을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무드로 장식하는 스몰 럭셔리로 매일을 행복하게 만드는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누리보자.





나를 위한 작은 행복

# Small Luxury Interior

현대적인 모던함과 고풍스러운 화려함이 엮보이는 스몰 럭셔리 인테리어는 우아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아름다움으로 매력을 어필한다. 작지만 확실한 프리미엄 공간을 표현하고 싶다면, 소품과 벽 컬러를 중심으로 한 변화를 통해 스몰 럭셔리 스타일을 연출해보는 것은 어떨까.



## 인테리어의 로망을 품은 스몰 럭셔리 하우스

호화롭고 고급스러운 럭셔리(Luxury) 스타일은 인테리어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이 인생의 큰 목표 중 하나인 현대인에게 럭셔리 인테리어는 많은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집의 이미지가 된다. 정돈되어 있는 가구와 물건들, 윤기가 나는 바닥, 고급스러운 소품들까지.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 아닌,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현실적인 삶에서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실용성과 비용 부분을 고려하면서도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럭셔리 이미지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스몰 럭셔리 인테리어'다.

스몰 럭셔리 인테리어에서는 집 안 전체를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없다. 다만 공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벽면에 다양한 컬러와 소재, 소품을 사용해 럭셔리 이미지와 개성을 더하면 된다. 벽면은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가치 있는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

스몰 럭셔리 인테리어를 완성도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컬러 무드를 색다르게 적용한 세 가지 스타일을 시도해볼 적하다. 강렬한 어반 시크(Urban Chic), 부드러운 세미 클래식(Semi Classic), 깊이 있는 모던 레트로(Modern Retro) 스타일이 그것이다.

## 스몰 럭셔리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세 가지 스타일

어반 시크(Urban Chic) 스타일은 도심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을 의미한다. 시크함을 대표하는 컬러인 그레이에 강렬한 포인트 컬러인 레드 계열을 사용하여 도시적이면서도 세련되고, 절제되어 있지만 과감한 컬러 매칭이 특징이다. 세미 클래식(Semi Classic) 스타일은 전통 클래식 무드에 모던한 감각을 가미해 현대적인 느낌을 담은 인테리어이다. 전통 클래식의 부담을 줄인 절제된 화려함을 표현하는 스타일로 네이비, 바이올렛 계열 컬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신비로운 느낌과 더불어 어딘가 조금 더 고풍스러운 느낌이 연출된다. 모던 레트로(Modern Retro) 스타일은 오펜지나 그린, 톨 계열의 컬러를 활용해 따뜻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배색으로 나만의 개성 넘치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1950년대 아메리칸 무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간결한 북유럽 가구처럼 깔끔한 라인의 디자인 가구와 매치할 경우에는 경쾌한 매력이 배가된다. 아름다운 과거로 회귀하되 동시에 현대적인 멋을 살린 모던 레트로는 유행을 잘 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이 매력이다. 이렇듯 컬러에 변화를 준 트렌드 스타일에 패브릭, 조명, 가드닝 등의 소품을 더해 완성한 스몰 럭셔리 인테리어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은 행복 찾기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S



# urban chic

어반 시크 스타일은 도시적인 감성 속에서도 세련된 고급스러움을 자아낸다. 베이스가 되는 그레이는 어떤 색상도 세련되게 아우르며 깔끔한 매력을 발산하고, 강렬한 레드 등을 함께 배색하면 누구나 쉽게 트렌디한 느낌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미니멀한 철재 가구와 우드 소품을 매치하면 더욱 럭셔리한 매력이 배가된다.



- CRIMSON  
SH S 2570-Y80R
- VIN CHAUD  
SH S 5040-R
- TEAL BLACK  
SH S 7502-B
- MIDNIGHT BLUE  
SH S 8502-B

# semi classic

세미 클래식은 자칫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 인테리어에 편안하고 소프트한 감각을 더함으로써 한층 산뜻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집 안에 부여할 수 있다. 지적인 블루와 신비로운 바이올렛은 공간에 클래식한 무드를 더하고, 화려한 상들리에나 금속 데코레이션을 곁들이면 우아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세미 클래식 인테리어가 완성된다.



BALLAD  
SH S 2020-R40B

PLUM ILLUSION  
SH S 5020-R40B

WISTERIA VIOLET  
SH S 5020-R70B

DARK PURPLE  
SH S 7020-R70B



PLUM ILLUSION  
SH S 5020-R40B



WINDSOR BLUE  
SH S 5020-R90B



DARK SAPPHIRE  
SH S 7020-R90B

# Modern Retro

더욱 럭셔리하고 유니크한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현대적(Modern)이고 역사 깊은 복고(Retro)의 조화를 뜻하는 모던 레트로 스타일에 닿았다. 화려하고 컬러감이 돋보이는 오렌지, 그린, 톨 등의 컬러는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여기에 화려한 빈티지 소품을 더하면 모던 레트로풍의 인테리어를 어렵지 않게 연출할 수 있다.



ORANGE CRAYON  
SH 5 2070-Y40R



HUNTER WELLIES  
SH 5 5030-B70G



PETROL BLUE  
SH 5 4050-B20G



GRAND BLUE  
SH 5 4050-R9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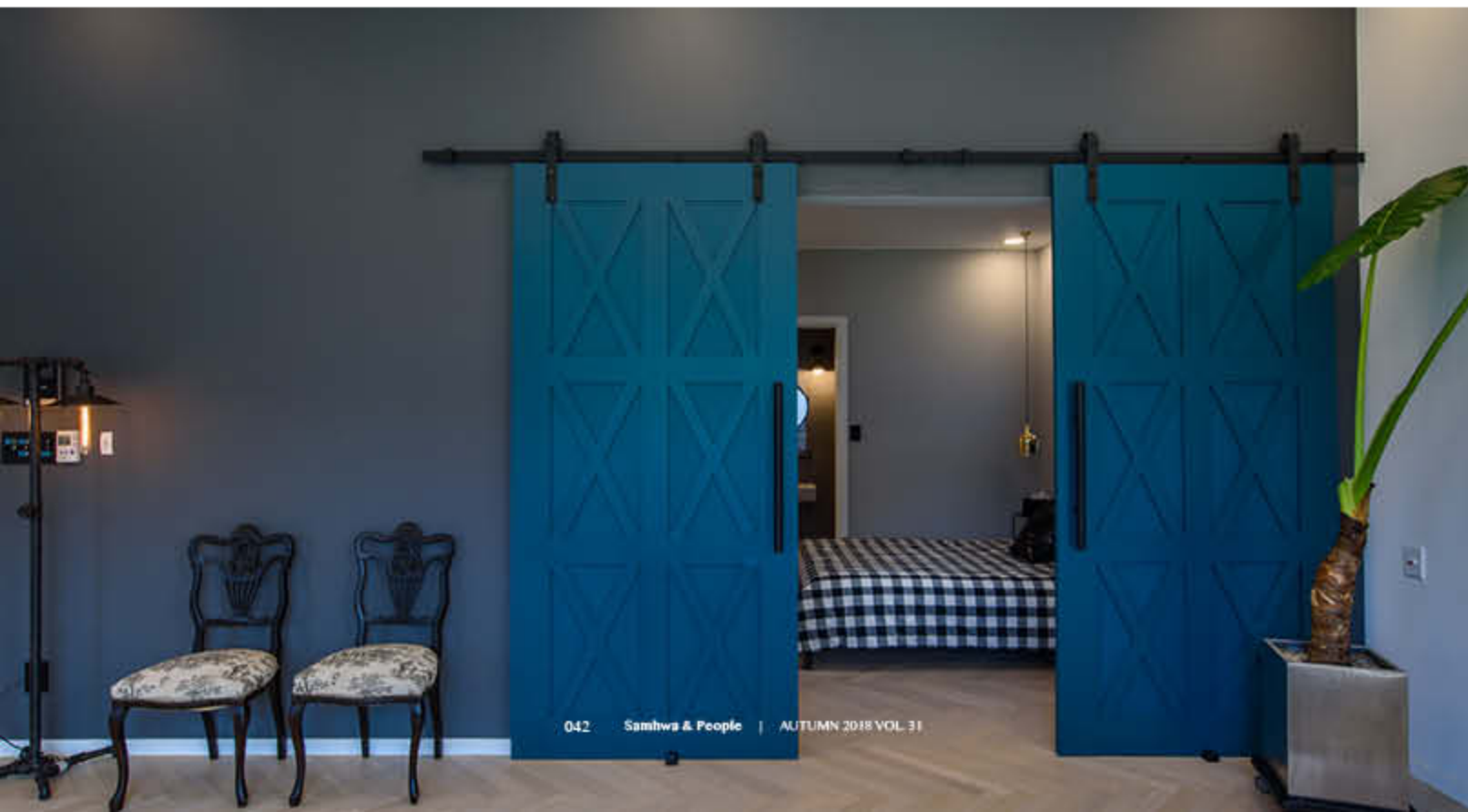




S  
+  
INTERIOR  
INTERVIEW

편집  
사진  
김선재

## 경기도 양평 30대 부부의 고급스러운 아티스틱 하우스



경기도 양평의 김태완·정지인 부부의 집은 고급스러운 아티스틱 하우스를 꿈꾸는 이들에게 부러움이 될 공간이다. 솟자를 예술로 바꾼다는 '수확' 강사 김태완 씨와 예술 중의 예술이라는 '회화' 작품을 그리는 정지인 씨가 꾸며낸 보금자리는 스몰 럭셔리 풍의 세련된 우아함과 편안함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 우아하고 아름다운 컬러의 무드

"이미 지어진 다른 집들도 많이 방문했죠. 하지만 마음에 꼭 드는 집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직접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무던히도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이렇게 완공하고 보금 자리를 옮기고 나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나날이네요."

김태완·정지인 부부는 건설사 민우주택건설의 김준만 대표와 함께 직접 설계한 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부부가 추구하는 '예술가의 집'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깨끗한 전원주택, 개방감 있게 탁 트여 한층 넓어 보이면서도 동선이 자유로워 활용도가 뛰어난 공간. 정지인 씨의 '미니멀'과 김태완 씨의 '인더스트리얼'이 어우러져 유니크하고 럭셔리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인테리어, 거기에 사랑하는 반려묘인 심바, 루이,



플리, 제리를 위한 세심함을 더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집은 사는 이의 취향과 안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외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깨끗한 밀크 화이트(Milk White) 컬러로 페인팅한 벽면과 넓은 마당, 피크닉을 하기 안성맞춤인 휴식 공간이다.

커다란 창을 통해 마당과 연결된 주방과 거실은 최대한 오픈하여 한층 확장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언제 어디서나 한눈에 서로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부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거실과 침실 사이에는 커다란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 공간의 개방과 분리가 자유롭도록 했다.

가장 베이스가 되는 월 컬러로는 밀크 화이트(Milk White)와 딴 그레이(Dim Gray)를 사용했다. 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밀크 화이트(Milk White)는 차갑지 않고 따뜻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정확히 표현했다. 딴 그레이(Dim Gray) 컬러는 모던하고 이지적인 분위기로 공간에 힘을 실어 주었다. 특히 슬라이딩 도어에 사용한 타이달 풀(Tidal Pool)은 아티스틱한 생동감과 입체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삼화페인트로 시공한 모든 문과 벽면은 여러 컬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명료하게 구분되어 경쾌하고 청명한 무드의 연출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집의 모든 벽을 페인트로 시공하기로 결정하고 페인트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삼화페인트를 선택한 것은 정말 'Perfect'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색감과 질감의 차이에도 민감한 편입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색감 표현이 예상한 것과 다른 느낌이 나지 않을까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삼화페인트는 도색 후의 색감 표현이 정말 훌륭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거실과 계단을 통해 이어진 2층에는 부부의 개별 작업실이 있다. 이곳 또한 모두 삼화페인트로 페인팅했다. 특히 플래티늄 그레이(Platinum Gray)는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2층은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자주 올라와 뛰노는 공간이기도 하다.

"삼화페인트로 페인팅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니, 작업이 더욱 잘 풀리는 것도 같습니다. (웃음) 페인팅을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신경을 쓴 부분은 강도인데요. 다묘가정 이다보니, 고양이의 습성인 '스크래치'가 걱정되어 페인팅을 시공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4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더라도 물걸레로 지우면 굵힌 자국이 찾기 힘들 정도로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남편이 실수로 테이블을 벽으로 넘어뜨려서 굵힌 자국이 생겼었는데, 지우개로 지우고 나니 이전 어디였는지도 찾기가 어렵네요. 색감의 측면에서나 강도의 면에서나 만족스럽습니다." 이와 함께 부부의 집에서 또 한 가지 두드러진 것은 미사강변도시에서 뮤즈데코(MUSE DECO) 패브릭솜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정지인 씨가 직접 초이스한 브라운 계열의 커튼, 다채로운 컬러와 무늬의 쿠션, 골드 계열 데커레이션의 조화였다.

### 새로운 날들도 삼화와 함께

"도시에서는 전원생활의 매력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나니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삭막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침마다 불어오는 산 공기와 거실 가득 채우는 한낮의 따뜻한 햇살, 사진으로만 보아오던 저녁노을과 자장가 같은 귀뚜라미 소리들. 하루 하루 황송할 만큼 감사한 자연의 선물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새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김태완·정지인 부부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인 씨는 미술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동시에 미사강변도시의 뮤즈데코(MUSE DECO) 패브릭솜의 실장으로든 바쁜 나날을 보낼 예정이다. 그리고 김태완 씨는 조만간 미사강변도시에 학원을 오픈할 예정이다. 새롭게 문을 여는 학원의 인테리어 또한 모두 삼화페인트로 페인팅을 계획하고 있다. 부부는 더 좋은 연출을 통해 다시 한번 <삼화엔피플> 독자들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S



## 우리집도 카페처럼! 내추럴 우드 문패 DIY

길을 가다 보게 되는 예쁜 카페의 나무 간판. 오늘은 카페 인테리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내추럴 우드 문패 만들기에 도전해보자. 아까자기한 귀여움과 수제 특유의 정성스러움이 묻어나는 문패가 우리 집 인테리어를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HOW TO \_ 1 자투리 목재를 적당한 사이즈로 재단하고, 사포로 표면을 가볍게 샌딩한다. 2 목재의 질감과 결을 살리기 위해 스펀지 브러시로 아이생각 수성 스테인 소나무 컬러를 2회 이상 페인팅한다. 3 완전히 건조된 목재에 홈스타 파스텔을 활용해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의 스텐실을 새겨준다. 4 스펀지 붓을 활용해 얇고 고르게 아이생각 우드바니시를 2회 페인팅해준다.



## 투박함과 멋스러움이 가득한 빈티지 우드 문패 DIY

오랜 카페의 낡은 간판처럼 걸어 두기만 해도 고급스러운 빈티지 분위기를 풍기는 우드 문패 만들기. 삼화페인트 메탈릭데코 아이언 모카를 사용해 더욱 유니크한 컬러와 빛깔을 자랑하는 빈티지 우드 문패로 나만의 인테리어를 연출해보자.



HOW TO \_ 1 사포로 표면을 가볍게 샌딩한 후 페인트의 밀착력을 높여주기 위해 홈스타 젯소를 얇게 2회 칠한다. 2 자연스럽게 녹이 손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메탈릭데코 아이언 모카를 칠한다. 3 홈스타 파스텔을 활용해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의 스텐실을 새겨준다. 4 완전히 건조시킨 후 표면에 메탈릭데코 전용 부식액을 전체적으로 1회 도포하고 건조시킨다. 마지막으로 탑클리어를 발라 마무리해준다.



# Luxury Interior Style

황금빛 골드와 짙은 바이올렛 컬러로 꾸민 공간.  
무한대의 영역을 품는 원형,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곡선,  
풍성한 럭셔리 텍스타일로 우아하면서도 특별한 공간을  
연출했다.

1 원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플랏릿 램프는 데스크  
2 실버 오브제 르소에 3 업식 테이블 양용걸 작가 4  
회려한 골드 체어 월즈 5 퍼플 스톤 카르텔 6 플 오브제  
함 개사알레스스 7 코르시디자인팩토리 트레이 로소들 8  
알소가죽 카펫 캐례 9 옷걸이 편치 10 이지엔 라운지체어  
인피니 11 펜던트 램프 아르텍



# Color Magazine vol.34

## 2018 Fall & Winter Interior Color Package

포근함을 찾게 되는 계절을 맞아 가을과 겨울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컬러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18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짙은 레드(Red), 블루(Blue) 계열의 컬러를 과감하게 활용하거나, 뉴트럴 컬러를 모던하게 활용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에서는 가을과 겨울에 어울리는 트렌드 컬러를 활용한 2018 FW 인테리어 컬러 패키지를 Autumn Blush, Creamy Mild, New Trendy 등 3개의 콘셉트로 제안한다.

# Autumn Blush

## 인테리어 컬러 패키지

콘셉트 | 따뜻하면서도 화사하고 포근한 공간  
키워드 | WARM, COZY, BLOSSOM, RED, VITAL



### Package ① Red Fruit Tea

와인과 풍차 빛깔을 닮은 짙은 레드 컬러는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 중 하나이다. 화이트, 그레이, 블랙 등 무채색 컬러와도 스타일링이 쉬울 뿐만 아니라, 원목과 철제 소재의 가구와도 잘 어울린다. 특히 미드톤 옐로우, 브라운 컬러와 함께 차분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가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Paint Color	Color Styling	
 RED FRUIT TEA SH S 5030-R10B	 LIGHTENING GRAY SH S 2005-Y30R	 PYRAMID YELLOW SH S 2030-Y
	 SADDLE BROWN SH S 5030-Y40R	 MILK FOAM PINK SH S 1010-R

### Package ② Coral Berry

봄에 느꼈던 화사함을 보다 차분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느껴보고 싶다면, 코랄빛을 머금은 소프트 레드 컬러로 공간을 채워보자. 수채물감으로 물들인 듯한 텐더 블루(Tender Blue), 위스테리어 바이올렛(Wisteria Violet), 윈터 가든(Winter Garden) 컬러의 패브릭을 함께 스타일링하면 몸도 머리도 상쾌해지는 청량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Paint Color	Color Styling	
 CORAL BERRY SH S 2030-Y90R	 SHOOTING GRAY SH S 1500-N	 TENDER BLUE SH S 2010-B10G
	 WISTERIA VIOLET SH S 5020-R70B	 WINTER GARDEN SH S 4010-G30Y



### Package ③ Rosy Tan

세대 구성과 성별에 상관없는 멀티 제너레이션(Multi-generation)을 위한 공간에는 장미빛 머드를 연상시키는 로지 탄(Rosy Tan) 컬러를 추천한다. 다양한 컬러를 활용하기보다는 유사톤의 그레이시 컬러를 활용하면 좋다. 실버 그레이(Silver Gray), 티 블랙(Teal Black)의 테이블과 조명이 모던한 스타일링을 완성한다.

Paint Color	Color Styling	
 ROSY TAN SH S 4010-R10B	 SILVER GRAY SH S 2500-N	 DAMP GREEN SH S 3005-G50Y
	 TEAK BROWN SH S 4030-Y40R	 TEAL BLACK SH S 7502-B



# Creamy Mild

## 인테리어 컬러 패키지

컨셉트 | 부드럽고 편안한 자연친화적인 공간  
키워드 | CLEAN, MILD, SOFT, GREEN, CALM



### Package ① Feather Gray

뉴트럴 컬러는 시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스노우 화이트(Snow White), 웨더 그레이(Feather Gray), 페블 그레이(Pebble Gray) 컬러로 공간을 밝게 만들어주고, 짙은 그레이와 블랙 컬러를 포인트로 활용하면 누구나 선호하는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Paint Color	Color Styling	
 FEATHER GRAY SH S 2005-Y50R	 SNOW WHITE SH S 0500-N	 PEBBLE GRAY SH S 1502-Y50R
	 EDDY GRAY SH S 4005-Y20R	 TITANIUM GREEN SH S 7502-G

### Package ② Queenstown Lake

진정 효과를 주는 소프트 그린 컬러인 퀸스타운 레이크(Queens town Lake) 컬러로 페인팅한 공간은 안정감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에 좋다. 밝은 베이지 컬러를 다양한 톤으로 스타일링 하여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부드럽게 표현하도록 한다. 특히, 침실, 서재, 학생방 등에 적합한 컬러 배색이며, 밝은 컬러의 원목 소재 가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Paint Color	Color Styling	
 QUEENSTOWN LAKE SH S 3010-G30Y	 POWDERY WHITE SH S 0502-Y50R	 BEIGE NUTMEG SH S 2010-Y40R
	 ACORN SH S 4010-Y50R	 CAVE STONE SH S 5005-Y80R

### Package ③ Powdery White

그린 컬러는 계절에 상관없이 어느 공간에나 어울린다. 여름 시즌의 브라이트 그린 컬러 대신 톤다운 그린을 활용하도록 한다. 파우더리 화이트(Powdery White) 컬러의 밝은 공간에 프렌치 모스(French Moss), 아보카도 소스(Avocado Sauce) 컬러로 프레시한 분위기를 살려준다. 바닥은 올리브 쉬머(Olive Shimmer), 코퍼 비치(Copper Beech)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

Paint Color	Color Styling	
 POWDERY WHITE SH S 0502-Y50R	 FRENCH MOSS SH S 3020-G20Y	 AVOCADO SAUCE SH S 1020-G70Y
	 OLIVE SHIMMER SH S 4040-G40Y	 COPPER BEECH SH S 5020-Y30R



# New Trendy

## 인테리어 컬러 패키지

콘셉트 | 이색적인 분위기로 개성을 표현한 공간  
키워드 | PREMIUM, EUROPEAN, EXOTIC, BLUE



### Package ① Bluecoat

유려피안 감성의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인테리어로 침실을 꾸미고자 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어두운 컬러로 벽면을 페인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블루코트(Bluecoat), 코코아 빈(Cocoa Bean) 컬러의 조합이 만디한 느낌을 준다. 이때, 메탈 소재를 적절히 활용하고, 천장과 침구는 밝은 톤의 무채색, 뉴트럴 컬러로 스타일링 하여 공간이 너무 어두워지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Paint Color	Color Styling	
 BLUECOAT SH S 5020-B	 COCOA BEAN SH S 7010-Y90R	 PURE GRAY SH S 1000-N
	 DRIFTWOOD SH S 2005-Y40R	 BATTLESHIP GRAY SH S 6502-G

### Package ② Pepper Gray

가전, 인테리어 등에 있어 프리미엄 키워드가 블랙 컬러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레이와 블랙은 주로 북유럽 스타일의 미니멀 디자인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트렌디한 컬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페퍼 그레이(Pepper Gray)의 페인팅 벽면과 밀크 화이트(Milk White), 머스타드 옐로우(Mustard Yellow)의 스타일링은 시크한 감성도 함께 담아낸다.

Paint Color	Color Styling	
 PEPPER GRAY SH S 7502-Y	 SHOOTING YELLOW SH S 2002-Y	 MILK WHITE SH S 0300-N
	 COZY COTTON SH S 1005-Y30R	 MUSTARD YELLOW SH S 3050-Y0R

### Package ③ Purple Pearl

디자인 가구를 선호하는 이들이라면 페인팅 컬러도 이색적으로 선택해볼 것을 추천한다. 퍼플 펄(Purple Pearl), 페트롤 블루(Petrol Blue) 컬러로 이국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실버, 코퍼, 브라스 등의 메탈 컬러와 함께 럭셔리 아몰리에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다양한 컬러를 활용할수록 밝은 톤보다는 미드톤 컬러 위주로 스타일링하도록 한다.

Paint Color	Color Styling	
 PURPLE PEARL SH S 2010-R70B	 SMOKY MOUNTAIN SH S 5010-B50G	 PETROL BLUE SH S 4050-B20G
	 GOLDEN BROWN SH S 3065-Y20R	 SILVER GRAY SH S 2500-N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30 / 현대건설(주) / 2007.07 입주 / 총 1622세대 / 총 30층

## 외벽, 아트를 입다! 핫 트렌드 레오파드 스타일링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매년 전국 아파트 재도장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고, 고객이 선호하는 컬러를 'CS Color Wheel'과 'NCS Triangle'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컬러와 디자인 지원 시 향후 방향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페인트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 최근에는 건물에도 옷을 입혀 패션 리모델링을 하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어 화제다. 실내 인테리어뿐 아니라 건물의 외관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패피(Fashion People)들이라면 관심 있게 보았을 올해 F/W 패션쇼의 대세 아이템, 레오파드 패턴은 과하고 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당한 매치와 감각 있는 포인트라면 패션에서뿐만 아니라 충분히 외벽디자인에서도 특별하고 센스 있게 표현할 수 있음을 느껴볼 수 있는 현장을 소개한다.

###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프라이어 팰리스는 자칫 과한 느낌이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레오파드 패턴을 하단부에 강조 컬러와 레이어드하여 살짝 툰 다운된 컬러감으로 세련되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지 규모를 고려하여 레드존(Red Zone), 그린존(Green Zone), 오렌지존(Orange Zone) 톤인톤 매치로 각각의 색이 가지고 있는 온도감을 비슷하게 맞춰 조화로우면서도 세련미를 전달했다. 이러한 독창적이고 신선한 패턴의 차별화된 외벽디자인은 단지 전체를 주변과 차별화된 거대한 예술작품으로도 완성될 것이며, 눈에 띄고 개성 넘치는 건물로 그 가치를 업그레이드시켜줄 것이다.





**촉촉한 빗소리가 아름다운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랑은 비를 타고>가 시즌7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작품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온 큰형 '등욱'과 그런 형이 못마땅해 가출했다가 7년 만에 돌아온 막내 동생 '등현', 이들의 갈등 사이에 엉뚱하게 끼어든 웨딩 업체 직원 '미리'를 통해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해준다.

기간 ~ 2018년 12월 30일  
장소 서울시 종로구 예술극장 나무와줄  
초대일 2018년 11월 16일 오후 8시



**동심을 일깨우는 일상의 오아시스  
전시 <나의 어린왕자에게>**

해외 유명 미디어 설치작가들이 새롭게 해석한 '21세기 어린왕자'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찾아왔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의 미디어 설치작가들이 읽고 느낀 어린왕자의 감정을 그들의 예술세계로 재현한 전시이다. 어린왕자의 스토리를 따라 인생에 대한 깊은 은유와 상징, 철학을 보여준다.

기간 ~ 2019년 1월 27일  
장소 서울시 강남구 K현대미술관  
초대일 2018년 11월 12~30일 중 선택 관람



**사랑과 낭만의 화가 르누아르가 전하는 행복  
르누아르 : 여인의 향기**

프랑스의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작품이 컨버전스 아트로 재탄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 말 파리와 남프랑스 등 화가가 평소 꿈꿨던 여유로운 분위기의 풍경화와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감각적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화가의 작품 세계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간 ~ 2019년 4월 28일  
장소 서울 성동구 본대번치뮤지엄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초대일 전시 기간과 동일



**삼화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추첨을 통해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5분, 전시 <나의 어린왕자에게> 5분, <르누아르 : 여인의 향기> 5분에게 티켓(1인 2장)을 선물합니다. 보고 싶은 공연명을 적어 응모해주세요. 응모는 11월 12일까지, 당첨자는 개별 통보 드립니다.  
\* 응모방법 : <speople@samhwa.com>로 신청해주세요.

**S QUIZ**

사진과 관계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맞는 내용끼리 연결해보세요. (예 : A-①, B-②)  
정답을 speople@samhwa.com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워시 프라이머는 일반적인 철재와 달리 페인팅이 잘 되지 않는 비철재 금속 위에 발라 페인트와의 부착력을 높여주는 일종의 본드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특히 삼화페인트의 신제품 'ONE-STOP 워시 프라이머'는 뛰어난 기능과 품질을 갖춘 것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A ①



삼화페인트는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의 거리환경을 이용한 거리예술 프로젝트에 몰해도 친환경 페인트 전량을 지원했다. 마치 갤러리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대담하고 예술적인 작품들은 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그래피티 아트 빌리지'의 명성을 다시 한번 높였다.

B ②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당첨자**

강동윤 서울시 강서구 / 강성대 경기도 수원시 / 박현준 경기도 부천시 / 변지성 경기도 안산시 / 이세은 경기도 성남시 / 이수현 경기도 수원시 / 이희연 경기도 안산시 / 임정섭 경기도 수원시 / 최황근 경기도 고양시 / 허윤영 서울시 동작구

**지난 호 퀴즈 정답**

A - ② (부산호천마을에 차열페인트 지원) B - ① (세로 분할 두른 페인팅)

**삼화인피플  
사내기자단**

연구혁신그룹	김필영 책임연구원	컬러디자인센터	이미리 대리
마케팅팀	박정희 과장	컬러디자인센터	백승아 사원
재무팀	김현정 과장	SM2-네트웍스	허현아 대리
해외사업팀	김병준 과장		

**SAMHWA**